

# 케냐 광산촌에 불어온 태권도 열풍

## 태권도는 수련생들에게 희망의 아이콘이 되고 있다



1993년 4월 뉴욕의 메디슨 스퀘어 가든에서 열린 세계태권도선수권 대회의 남자 라이트급 결승전 한국의 박세진 선수와 캐나다의 빅터 룩(Victor Luke)이 결승전에서 격돌했다.

안타깝게도 빅터 룩이 은메달로 선수생활을 마감했다. 은퇴한 룩은 토론토에 태권도장을 개관하여 많은 수련생들을 지도하며 지금까지 태권도 보급에 열정을 바치고 있다.

빅터 룩은 지난여름 케냐의 나이로비에서 차로 5시간 거리에 있는 Keiro vally의 Fluorspar 광산회사에서 지어준 경기장 매트 4개 크기의 Champion 도장에 케냐, 한국, 캐나다 국기를 걸어놓은 큰 체육관을 개관하였다.

2013년 7월 2일 개관 1주년 기념식 겸 belt test (심사)에는 체육관을 지어준 광산개발사장 찰스 필드 마스햄(Mr. Charles Field-marsham, 태권도 2단)과 주 케냐 캐나다 대사를 비롯한 많은 귀빈들이 참석하였고, 특히 그의 스승인 캐나다의 이암(Am Lee) 사범을 초청하여 자리를 빛나게 하였다.

그는 그곳 수련생들에게 한국에서 파견된 어경찬(Kyung chan, Euh) 사범을 통해 태권도 기술은 물론, 태권도 정신을 심는데 주안점을 두고 무료로 1년 동안 지도한 결과는 성공적이었다.

몰라보게 달라진 수련생들의 예의 바르고 활기찬 모습을 본 주민들을 태권도의 매력에 흠뻑 빠져 들게 하였다. Victor Luke! 그는 지금 Kenya keiro valley의 영웅이 되었고 태권도의 인기는 그곳 주민들의 화제의 중심이 되고 있다.

이암 사범과 빅터는 1977년부터 수련생과 스승의 관계이며, 윤종완(전, 상명대학교 예체능대학장)교수와 이암 사범은 대학 동문이다. 윤교수와 빅터는 이암 사범의 부탁으로 빅터가 중, 고교시절 수차례의 한국 전지 훈련을 지원 했으며 뉴욕 세계대회 당시 가졌던 방송(KBS 해설



▲ 개막식에 참석한 대사 부부와 사범들(위), 수련생 가족들(아래)



▲ 사진 오른쪽부터 Dr. Yoon, Mr. Victor Luke, Mr. Charles Field-marsham.

자) 인터뷰로 더욱 친밀한 관계 유지하며 우정을 돈독히 해왔다.

광산촌에 도장 건립할 당시에도 빅터가 이암 사범과 의논하여, 완암(윤종완 '완'자와 이암의 '암'자를 따서 만들음)아카데미에서 파견된 한국인사범과 운영 전반에 걸친 자문을 받아왔으며 스리랑카에서 KOIKA 요원으로 활동한 경희대 출신의 어경찬 사범 파견하였다.

챔피언도장은 2012년 7월 2일 개관하였다. 개관식 때 캐나다 대사부부와 해외 특파원들이 취재로 케냐 수도 나이로비는 물론, 김스와리키로(Kim warer Keiro 해발 1,600m)의 광산촌의 광부와 자녀 등 500여 명의 수련생으로 인한 태권도의 위상은 무조건 good!! 이었다.

빅터는 향후 우수한 수련생을 캐나다에 초청하여 무료로 학업과 태권도 수련을 학부모들께 약속하는 등 태권도 수련생들에게 희망의 '아이콘'이 되고 있다.

태권도장을 흔쾌히 지어준 찰스(Mr.charles Field-marsham)는 태권도 2단이며, 캐나다 우수한 재력가로 딸 2명도 초단으로 캐나다 토론토에 거주하며 태권도를 배우고 있다.

빅터 룩(Victor Luke)은 캐나다 국가대표코치를 역임한 사범(공인7단)으로 토론토에서 태권도장 4곳을 운영하고 있으며, 찰스(Charles)와는 오랜 동갑내기 친구이며, 태권도로는 스승과 제자 관계이고 찰스의 두 딸 또한 빅터의 제자이다.

완암태권도 사범 아카데미(Wan Am, Teakwondo Instructor Academy Korea)는 태권도 해외보급 발전을 위해 희망국가의 사범요청을 지원, 봉사하는 목적으로 설립하였다.

케냐의 태권도장설립과 같은 바람직한 일들이 완암아카데미를 통해 많이 이루어져 많은 사범들이 해외진출의 교두보 역할을 할 것이라고 윤 교수는 힘주어 말했다.